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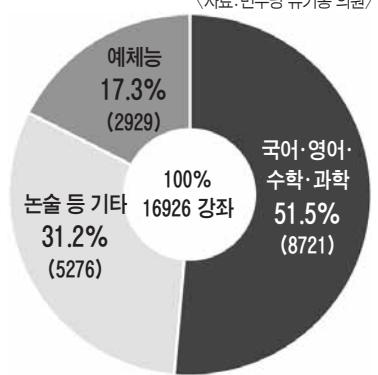
'교실 내 사교육'... 변질된 초·중·고 방과후 학교

광주, 입시과목 국·영·수·과학 절반 이상 물려

1인당 평균 2.6강좌 수강... 월 평균 3만 3741원

101개교 382강좌 민간 영리기관에 위탁해 운영

■ 광주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교 국어·영어·수학·과학 과목 개설 비율이 평균 46.4%였다.

여기에 논술을 합하면 입시 중심의

강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국어·영어·수학 중심 교과과목 비중은 커졌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현황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광주지역 65개 고교에서 개설한 방과후학교 강좌 2925개 중 9.4%인 274개 강좌만이 교과가 아닌 특기적성 강좌로 구성됐다. 이를 대부분도 특성화교에서 개설한 강좌다.

반면, 일반고에서 개설한 특기적성 강좌의 상당수는 입학사정관제 이해와 활용, 영어뉴스 듣기, 독서토론논

술, TEPS반, 과학탐구심층면접 등 교과목은 아니지만 입시를 대비한 강좌들이었다.

중학교는 전체 88개교 1403개 강좌 중 58개교 304개 강좌(21.7%)가, 초등학교는 148개교 2513개 강좌 중 136곳 434개 강좌(17.3%)가 국어·영어·수학 과목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광주(301곳)·전남(830곳) 모든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했고, 학생 참여율은 광주 65.7%, 전남 77.5%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수강 강좌 수는 광주 2.6개, 전남 2.8개였고, 월평균 수강료 부담액은 광주 3만 3741원, 전남 2만 8966원이었다. 광주

지역의 수강료 부담액은 전국 평균 3만 1314원을 웃돌며, 서울·부산·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았다.

특히 광주는 민간 영리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영리기관 위탁은 101개교 382개 강좌로, 비영리기관 강좌(56개교 126개)의 3배에 달했다.

유기홍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는 영리기관과 종합반 수업을 계약해 운영하는 등 방과후학교가 '영어 사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입시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제재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강도, 범행 1시간만에 붙잡혀

강진경찰은 3일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60대 여성을 흥기로 위협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김모(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강진군 강진읍에 사는 이모(여·62)씨의 집에 침입해 흥기로 위협한 뒤 현금 8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불법정차 향의 행인 때린 택배기사

○...“왜 횡단 보도에 정차해 지나다니기 불편하게 만드냐”고 욕설을 섞어 향의 행인을 때린 30대 택배기사가 경찰서 행.

○...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39)씨는 2일 낮 12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동창 사방방문고 앞 교차로 횡단보도 위에 트럭을 세우고 신호 대기 중, 때마침 보행자 신호로 길을 건너던 박모(38)씨로부터 보행에 방해된다는 욕설을 듣자 차에서 내려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에서 김씨는 “횡단보도에 정차한 것은 잘못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심한 욕설을 들으니 참을 수 없다”고 진술.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그 많던 조폭은 어디로 갔을까?

경찰 파악, 광주·전남 16개 조직 555명 활동

검은 양복에 '깍두기'처럼 짧은 스포츠 멤버를 한 채 충장로를 거닐던 '어깨'들을 보기 쉽지 않다. 잘 나가는 나이트클럽 앞에서 "형님"하며 '90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하는 '영화 같은 장면'도 이젠 매우 드물다. 한때 전국에 악명을 끌던 광주의 '조폭'들, 어디로 사라진 걸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3일 내놓은 경찰청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국제 PJ ▲무등산 ▲충장OB ▲신양OB ▲콜박스 ▲신양관광 ▲수기동 ▲신서방파 등 8개 폭력조직 조직원 321명을 관리대상 주요 폭력조직으로 보고 등항을 파악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해남 접계파 ▲목포오거리·서산·수노아파 ▲광양 라이온스·백호파 ▲여수 중앙·신시민파

지역경기 침체 수도권 끊겨 보험사기 등으로 업종변경

총학 장악 등 새길 모색도

들어 수도권 등으로 활동부대를 끊긴 '지 오래'라는 게 광주·전남 폭력조직 담당 경찰의 진단이다.

지역 변화가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조직을 이끌어갈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아지면서 조폭들이 눈독을 들이며 때로는 무자비한 난투극까지 벌이며 생활전을 벌였던 관할 구역, 속칭 '나와바리'가 사라진 지 벌써 오래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관광호텔,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위세를 부리며 금품을 쟁취한 후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업종변경'을 위해 보험사기에 뛰어들거나 노래방 도우미 공



급 등을 기웃거리기도 했지만 이미 도입 중 단속에 세력화는 실패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학교 총학생회를 장악, 조직 자금을 확보하려 하거나, 학교 총회생들을 끌어들여 세력 확산 시도는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단기 4346년 개천대제

서 열렸다.

임차인 외 3자가 낸 사고

렌터카 보험적용 안된다

렌터카업체의 약관에 임차인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됐다면 제3자가 낸 고통사고의 배상 책임은 사고를

단기 4346년 개천대제가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동 무각사 뒤편 여의산 단성전에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낸 당사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부화재가 김모(29)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쾌소로 판결한 원심을 평가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단기 4346년 개천대제

서 열렸다.

임차인 외 3자가 낸 사고

렌터카 보험적용 안된다

렌터카업체의 약관에 임차인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됐다면 제3자가 낸 고통사고의 배상 책임은 사고를

단기 4346년 개천대제가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동 무각사 뒤편 여의산 단성전에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낸 당사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부화재가 김모(29)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쾌소로 판결한 원심을 평가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는 것.

/연합뉴스

단기 4346년 개천대제

서 열렸다.

임차인 외 3자가 낸 사고

렌터카 보험적용 안된다

렌터카업체의 약관에 임차인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됐다면 제3자가 낸 고통사고의 배상 책임은 사고를

단기 4346년 개천대제가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동 무각사 뒤편 여의산 단성전에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낸 당사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부화재가 김모(29)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쾌소로 판결한 원심을 평가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는 것.

/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법정서 '고발'

광주지법서 광복 68년만에 처음 미쓰비시중공업 피해 증언 나서

양금덕(88·광주시 서구 양동) 할머니는 지난 1944년, 14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가면 돈도 별로, 공부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나고 야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갔다.

그곳에서 양 할머니는 말로 다 하지 못할 참혹한 경험을 했다. 공부는 커녕 허기와 싸우며 하루 10시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광복 68년 만에 처음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4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4차 공판에서 피해 할머니들이 피해자 증인으로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 양 할머니 등은 법

정에서 원고측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재판에는 시민과 학생은 물론 일본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지원활동을 펼쳐온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위원회' 등 일본인 12명이 광주를 찾아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학교 총학생회를 장악, 조직 자금을 확보하려 하거나, 학교 총회를 통해 계약을 맺거나 지원하는 행위를 통해 학교를 방해하는 행위를 휘둘렀다는 것.

/박정우기자 halo@kwangju.co.kr

단기 4346년 개천대제

서 열렸다.

임차인 외 3자가 낸 사고

렌터카 보험적용 안된다

렌터카업체의 약관에 임차인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됐다면 제3자가 낸 고통사고의 배상 책임은 사고를

단기 4346년 개천대제가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동 무각사 뒤편 여의산 단성전에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